

조별리그 경기일정

H 조

-  대한민국
-  벨기에
-  알제리
-  러시아

대한민국

- 18일 (수) 07:00 러시아
- 23일 (월) 04:00 알제리
- 27일 (금) 05:00 벨기에

벨기에

- 18일 (수) 01:00 알제리
- 23일 (월) 01:00 러시아
- 27일 (금) 05:00 대한민국

알제리

- 18일 (수) 01:00 벨기에
- 23일 (월) 04:00 대한민국
- 27일 (금) 05:00 러시아

러시아

- 18일 (수) 07:00 대한민국
- 23일 (월) 01:00 벨기에
- 27일 (금) 05:00 알제리



“좀 더 공격적으로”

2014 브라질 월드컵 개막을 이틀 앞둔 11일 오후(현지시간) 한국대표팀의 베이스캠프인 브라질 이구아수의 페드로 바소 경기장에서 열린 첫 공식 훈련에서 홍명보 감독이 선수들에게 지시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반전에 도전!

홍명보 감독 브라질 입성...마지막 담금질 돌입

이구아수·파라과이 교민 연합군 열혈 응원

한국의 지구 반대편에 있는 브라질의 휴양도시 포스 두 이구아수에 “대~한민국!”이 울려 퍼졌다.

홍명보 감독이 이끄는 한국 축구대표팀은 11일 정오(이하 현지시간) 2014 브라질 월드컵 베이스캠프가 마련된 이구아수에 짐을 풀었다.

미국에서 가진 가나와의 마지막 평가전에서 0-4로 대패한 태극전사들의 굳은 표정은 숙소인 버번 카타라타스 컨벤션 리조트에 도착하자 이내 한결 풀렸다.

“대한민국 바모스(Vamos·‘가라’라는 뜻의 스페인어)! 필승 코리아!” 태극전사와 코칭스태프가 탄 버스가 버번 호텔 정문을 들어서자 2시간 전부터 기다리던 교민과 이구아수 주민 100여명은 태극기를 흔들며 목이 터져라 구호를 외쳤다.

이구아수에 주둔한 브라질 육군 군악대 30여명은 애국가를 연주하며 비장한 분위기를 더했다.

가장 먼저 버스에서 내린 홍 감독은 곧게 한복을 차려입은 3명의 꼬마 아이에게서 정성들여 준비한 꽃다발을 건네받고 속스럽다는 듯 미소를 지었다.

선수단이 교민들과 함께 기념사진을

찍을 때에는 몇몇 아줌마 팬들이 홍 감독 옆에 서려고 신경전을 벌여 주변을 웃음 바다로 만들었다.

이날 교민의 뜨거운 응원에도 대다수 선수들은 대패의 충격이 채 가시지 않은 탓인지 끝내 밝은 표정을 짓지 못했다.

그러나 사상 첫 원정 8강 진출을 염원하는 수많은 축구팬들이 여전히 응원하고 있다는 점을 태극전사들이 되새기게 하기에는 충분해 보였다.

이날 응원은 브라질 이구아수 한인회와 파라과이 한인회가 함께 준비했다.

두 한인회는 약 두달 전 대표팀 응원을 함께 하기로 의견을 모았고 한 달 전부터 응원복과 플래카드, 꽃다발 제작에 들어갔다.

홍명보 감독의 브라질 입성 첫 훈련은 ‘회복’과 ‘패스워크 향상’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

여장을 풀 한국 축구대표팀은 이날 오후 베이스캠프인 브라질 포스 두 이구아수의 페드로 바소 경기장에서 첫 공식 훈련을 소화했다.

오후 5시에 훈련장에 모습을 드러낸 23명의 태극전사들은 관중석을 가득 메운

600여 관중의 응원소리를 들으며 한 시간 가량 굵은 땀방울을 흘렸다.

국제축구연맹(FIFA)은 월드컵 본선에 참가하는 팀은 첫 경기 전에 한 차례 이상 공식 훈련장에서 공개 훈련을 갖도록 하고 있다. 선수들은 별도의 러닝 없이 곧바로 이케다 세이고 피지컬 코치의 지도 아래 ‘코어 트레이닝’에 돌입했다.

팔을 벌리고 허리를 숙인 채 한 다리로만 몸을 지탱하는 등 몸 중심 근육을 강화하는 훈련이다.

회복을 겸한 코어 트레이닝 훈련이 끝나자 선수들은 삼각형 형태로 서서 20여분간 패스를 주고받았다. 이어 3개 조로 나뉘어 공 빼앗기 훈련을 강도 높게 소화했다.

공을 소유한 조의 선수들은 동료와 짝을 패스를 주고받다가 다른 조원들의 압박이 들어오면 반대편에 있는 선수에게 공을 넘겼다.

마지막 평가전인 가나전(0-4 패)에서 상대의 압박에 속절없이 무너진 점을 거냥한 탈압박 훈련으로 보였다. 홍명보 감독은 훈련 중간에 선수들을 불러모아 시범을 보이기도 했다. 평소 홍 감독은 훈련 중 공을 차는 경우가 거의 없다.

압박 수위가 높아질 때면 김태영 코치가 굵은 표정으로 “(반대편으로 공을) 쏘려!”라고 외치며 전투적인 분위기를 한껏 드높였다. /연합뉴스

“오직 우승뿐”

‘브라질 축구 희망’ 네이마르 “득점왕 필요 없어”

브라질 축구의 신성 네이마르(22·FC 바르셀로나)가 월드컵 우승을 향한 강렬한 열망을 나타냈다.

네이마르는 브라질과 크로아티아의 2014 브라질 월드컵 개막전을 하루 앞두고 12일(이하 한국시간) 브라질 상파울루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다른 것은 원하지 않는다. 오직 우승만이 내가 원하는 것”이라고 뜻을 밝혔다.

그는 “최고의 선수가 되고 싶은 것도, 득점왕이 되고 싶은 것도 아니다”며 “어떤 과정이 됐든 상관없다. 항상 꿈꿔왔던 우승을 하고 싶다”고 정상을 향한 기대를 숨기지 않았다.

네이마르는 아직 20대 초반에 지나지 않지만 월드컵 개최국이자 세계 최강으로 일컬어지는 브라질 축구의 희망이다.

그 역시 자신에게 쏟아지는 고국의 기대를 잘 알고 있었다.

네이마르는 “오늘 이 자리에 있어서 영광이다. 내 친구들은 내가 고국에서의 월드컵에 나선다는 사실이 나뿐만 아니라 자신들의 꿈을 실현하는 것이기도 하다고들 말한다”며 “모든 브라질인의 꿈을 이

루고 싶다”고 힘줘 말했다.

네이마르는 국가 대항전 49경기에서 31골을 넣어 현재 브라질 대표팀 선수 중 가장 많은 골을 넣은 선수다.

2위 프레드(31·플루미넨세)의 34경기 출장, 17골과는 차이가 작지 않다.

특히 지난해 컨페데레이션스컵 결승전에서 한 골을 터뜨리며 스페인을 3-0으로 무너뜨린 이후로는 브라질 대표팀의 완전한 중심이 돼가는 모양새다.

그럼에도 네이마르는 팀 내에서 자신이 접하는 중요성은 않지만 브라질이 자신을 위주로 돌아가는 팀이라는 발상은 경계하는 태도를 보였다.

그는 “나는 혼자서 해결하려고 하는 선수가 아니다”며 “경기장에는 11명이 있고, 이들 모두는 팀의 승리를 위해 자신이 해야 할 일과 역할을 잘 알고 있다”고 동료에 대한 강한 믿음을 나타냈다.

브라질은 13일 오전 5시 크로아티아와 대망의 개막전을 치르고 사상 최초 통산 6번째 우승이라는 불멸의 금자탑을 향한 첫걸음을 내디딘다. /연합뉴스



숫자로 본 브라질 월드컵

800

월드컵 본선 통산 경기
21일 나이지리아와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의 경기는 월드컵 통산 800번째 경기.

517

골키퍼 연속 무실점 시간
1990년 이탈리아 골키퍼 발테르 쟁가가 세운 연속 무실점 시간. 433분 무실점 스페인 이케르 카시야스가 이번 대회서 경신 도전.

50

통산 헤트트릭 주인공
현재까지 48명의 헤트트릭이 발생. 가장 최근 헤트트릭은 2010년 아르헨티나 곤살로 이과인이 작성. 50번째는 누구?

15

역대 최다골 도전
14골 기록중인 독일의 미로슬라프 클로제. 브라질의 호나우두가 갖고 있는 15골 경신에 도전.

2209

브라질 월드컵 첫번째 골
그동안 월드컵 본선에서 나온 골은 총 2208골. 2014 브라질 월드컵 첫 골이자 역대 2209번째 골의 주인공은 누가 될까.